

##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 풍암호수공원에 가을이 '활짝'



22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 메밀꽃밭을 찾은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풍암호수공원원에서는 23일부터 26일까지 '덧밭정원! 치유와 예술을 더하다'란 주제로 '5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주거지·농경지·야산에 '우후죽순' 지자체, 태양광 발전 설치 '급제동'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좋지만 난개발·거주안정·소득사업 방해 시·군 개발 허가 기준 대폭 강화

전남지역 각 시·군이 부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최근 주거 밀집지역과 농경지·산 등을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자연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뒤 개발에 생산한 발전량은 66만9189MW다. 이는 전년 대비 43만5203MW보다 23만 3986MW 많은 발전량이다. 2016년 현재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 규모

에 대해 집계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태양광 발전 생산량 수치를 보면 허가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도내 시·군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심상치 않다.

난개발에 거주안정, 주민소득사업 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양식장(1만6528.9㎡·5000평)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완도의 경우 양식장 관리인 6명이 전북 치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순천에선 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을 두고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업체도 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전남도가 허가한 순

천만 폐업전 주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각 시·군은 뒤늦게 운영지침을 만들어 개발 행위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6월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도로·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100m로 늘린다는 내부 운영지침을 신설 했다.

앞서 완도군도 지난해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500m로 확대한다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같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각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수도 급감했다.

완도는 127건(지난해)→0건(올해), 화순은 24건(〃)→23건(〃), 강진은 60건(〃)→0건(〃)으로 각각 줄었다.

일부에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유발효과가 낮은 태양광 발전시

설에 대해선 혹독한 구조조정 등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전남도와 각 시·군별로 분류해 허가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휴대전화 앱-은말해진 성매매 ▶6면  
 Newport유람-충남 백제문화제 ▶18면  
 KIA 투수 헛덕 200이닝 도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쌀 초과 생산량 35만t 전량 수매 저소득 가구·북한 등에 지원해야"

농민·정치권 요구...김재수 장관 "다음달 14일 대책 발표"

올해 쌀 생산량이 400만t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쌀값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농민들도 반발하고, 정치권도 쌀 초과량 전량수매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2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통계청 발표가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도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 정도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들과의 '쌀 수급 안정' 당정 간담회에서 과잉 쌀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정 수요보다 35만t 정도 초과할 것"이라며 "통계청 숫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대비해서 조기에 대책을 발표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쌀 수매 선지급금도 40kg 기준 4만5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장관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기 전까지 조차해 현장 농민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과잉 물량'인 35만t을 전량 정부가 수매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추곡 매입가격도 작년과 같은 수준(5만2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참석 의원들은 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쌀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빈곤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들과의 '쌀 수급 안정' 당정 간담회에서 과잉 쌀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정 수요보다 35만t 정도 초과할 것"이라며 "통계청 숫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대비해서 조기에 대책을 발표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쌀값 및 수급 안정 차원에서 쌀 소비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14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농민 6000여명은 이날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수매가 인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김동철·윤영일 의원 공동발의

국민의당 김동철, 윤영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91명이 서명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0명, 국민의당 30명, 비교섭단체 4명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의 합의를 토대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광주송정-목포)의 최종노선을 조속히 확정할 것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차질 없이 건설할 것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김·윤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구간은 애초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으나 무안 국제공항 경우 문제로 아직까지도 최종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남선 KTX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공항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전북과 충청권 이 용객까지 흡수함으로써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또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안개·강풍 등으로 잦은 결항이 반복되는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으로 최적"이라며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로서 국내 고속철도 건설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해 해외수주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 91명이 서명한 것에 동참한 것은 호남고속철 2 단계사업 뿐만 아니라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올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